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 개발*

정다운**

Developing Learning Modules Based on Border Practices to Foster Critical Global Citizenship*

Daeun Jeong**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개념에 기반한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전략으로 전환하고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개념을 5E 탐구 학습모형에 통합하여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모듈은 학습자가 경계의 권력적 작동 기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치·윤리적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모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타당도 및 전문가 합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의 학문적 전환을 반영하여 국가 교육과정 및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비판적 세계시민성,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경계실천, 지리교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arning modules based on the concept of 'border practices' and to validate their effectiveness, thereby practically implementing the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equir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study first converted the core concepts of border practices (the mobility, fluidity, and multi-layeredness of borders, bordering, cosmopolitan borders, and borderwork) into educational strategies for fostering critical global citizenship and derived a structured learning framework. Based on this framework, the modules were designed by integrating each concept into the 5E Inquiry Model. The modules are structured to encourage learner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power mechanisms of borders and cultivate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long with a practical willingness to act. Finally,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the developed modules to confirm their content validity and expert consensus. This research establishes a prac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geography,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its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nd educational field, aligning with recent academic shifts.

Key Words : Critical global citizenship,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order practices, Geography education

I. 서론

오늘날 전 지구적 현안들은 환경, 정치, 사회, 경제, 안

보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 불평등 심화, 폭력적 극단주의 등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

*이 연구는 정다운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de1211@snu.ac.kr)

는 주요 도전으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방식만으로는 범국경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개인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특정 국가에서 전 지구적 공동체로 확장하려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개념이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단순히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개입이 요구되면서 비판적 세계시민성(Critical Global Citizenship)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지구적 불평등, 권력 관계, 구조적 부정의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치적 해결과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Pashby, 2015; Stein, 2015). 이는 기존 세계시민성 담론이 서구 중심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세계화 문제를 지나치게 온건하게 다룬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Andreotti, 2006).

지리교육은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층적이고 중첩된 공간적 소속감을 기르는 데 강점을 가지며(한희경, 20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 관점에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로 인식된다(Gonzalez-Valencia *et al.*, 202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교과 목표 중 하나로 지향하고 있으며(김민성·이윤구, 2023), 관련 교수·학습 연구 역시 점차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 분야 내 비판적 세계시민성 논의는 여전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김갑철, 2022; Dispa *et al.*, 2025). 따라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윤노아, 2022).

본 연구는 경계(border)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최근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경계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실천되는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는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개념은 주목할 만한 이론적 도구이다. 경계실천은 경계가 사회적·정치적·담론적으로(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차별의 기제를 해체적으로 드러내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변형하는 행위들에 집중한다. Hafeda(2016:397)는 경계실천을 “비판적 공간 실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공간 구조를 새로운 관

점에서 재고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계실천은 지리과가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하는 유의미한 의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실천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실천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비판적 세계시민성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습 모듈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들(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중심으로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습 모듈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교육과정 및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은 타당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비판적 세계시민성

최근 세계시민교육 담론에서는 전 지구적 불평등, 권력 관계, 구조적 부정의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Critical Global Citizenship)’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Blackmore, 2016).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페다고지, 탈식민주의, 후기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개념이다(Oxley and Morris, 2013). 이는 기존 세계시민교육에서 주류였던 연성적 세계시민성(Soft Global Citizenship)과 이론적으로 대비되는 대항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Andreotti, 2006). 연성적 세계시민성이 현존하는 시스템을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신)자유주의적 경향

이 있다면,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사회적 부정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며 기존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shby et al., 2020). 비판 교육학자들은 연성적 세계시민성이 서구 중심의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추상적으로 보편화함으로써 주변부 세계 타자의 목소리와 현실을 불공정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김갑철, 201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논의된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자신의 지식과 그 전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핵심으로 삼는다(Blackmore, 2016).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2000년대 중반 영미권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담론 속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리교육 맥락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논의를 촉발한 Andreotti (2006)는 세계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문제로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Oxley and Morris(2013)는 억압적 세계 구조를 해체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세계시민성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Mansouri et al.(2017)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역량을 아우르는 연속체이며, 개인의 행동이 지역·국가·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과 비판적 지식 이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과 교육 맥락에서는 Gonzalez-Valencia et al.(2022)이 세계의 부정의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의 행동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내 지리교육 맥락에서 한희경(2013)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지역·국가·세계 간의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기존의 지배적 메타지리에 얽매이지 않고 중첩적이고 다변적인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갑철(2019)은 특정 권력에서 배제된 세계 타자에 대한 개방성과 정치·윤리적 책

입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얽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질’로 정의한다. 또한 Mansouri et al.(2017)의 논의와 기존 세계시민성의 하위역량 구분 연구(UNESCO, 2015; 윤성혜·강명희, 2017)를 토대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인지, 정의, 실천의 세 가지 하위 역량으로 나누어 표 1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부정의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정의·평등·다원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소외된 세계 타자들에 대한 정치·윤리적인 책임감을 갖는 태도가 요구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시된다.

2. 경계실천

전통 지리학에서 경계는 국가의 물리적 영토를 분할하는 정적인 선(line)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하학적이고 공간 과학적인 접근은 경계의 동적인 형성 과정보다는 고정된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계선을 표시하고 구분하는 ‘boundary’로서 경계를 인식하는 지배적 관점이었다(van Houtum, 2005).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등장한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Newman and Paasi, 1998). 이에 따라 지리학자들은 경계가 사회적·심리적·문화적 요소가 개입된 다층적이고 구성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eidel and Budke, 2019). 특히 공간을 중립적 용기로 개념화하는 전통적 방식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기존

표 1.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개념과 하위역량

비판적 세계시민성		
지역·국가·세계 수준에 얽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질		
인지(지식·이해)	정의(가치·태도)	실천(행동·행동의지)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얽혀 발생하는 부정의와 이를 초래하는 구조·체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정의·평등·다원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 및 소외된 세계 타자들에 대한 정치·윤리적인 책임감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참여 및 문제 해결 의지

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크다는 당시의 학문적 성찰이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조철기, 2012).

이러한 학술적 요구 속에서 비판지리학을 중심으로 경계를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이자 실천으로 인식하는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관점이 부상하였다(Andersen *et al.*, 2016; Hafeda, 2016; Connor, 2025).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난 실천적 전회(practice turn)와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의 흐름은 경계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하였다(van Houtum, 2005; 조철기, 2012). 이 관점에서 경계는 사회적, 물질적, 상징적, 기술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 구성, 유지, 수정되면서 실천된다(Piot, 2010).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경계 연구는 지리학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관계학, 인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통찰을 통합하는 학제적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지리학의 주요 과제는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서, ‘누가, 왜, 어떻게 경계를 긋고 그에 대항하는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경계실천의 관점에서 경계는 공간의 최외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상징, 기술 등 다양한 형태와 차원에서 존재하며 일상적으로 작동한다(박위준, 2023). 물질적 경계는 물리적 공간에 설치되는 장벽, 울타리, 검문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구현되며, 행정적 경계는 난민법, 여권, 비자 제도와 같이 이주자의 이동과 체류를 통제하는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에 해당한다(Popescu, 2011). 이에 더하여 상징적 경계는 이주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제노포비아(xenophobia)를 조장하는 미디어 담론과 같이, 사회에 확산되는 서사를 통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강화한다(Newman and Paasi, 1998). 예를 들어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 사례에서 물리적 장벽을 세우고 이민 제도를 강화하는 행위, 이를 정치적 담론으로 활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반대하여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들 모두 경계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계실천 관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실천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특히 경계가 사회적, 정치적, 담론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 차별,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한다(Popescu,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의 경계에 대한 윤리적, 정의적 논의를 촉발하며, ‘국익과 안보라는 명분으로 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

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과 함께 다양한 경계 행위들이 수반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한 이주나 이동을 넘어 글로벌 불평등 속에서 경계를 재구성하고 협상하며 탈경제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행위에 참여한다(Piot, 2010). 이러한 관점에서 Hafeda(2016)는 사람들이 경계 구성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비판적으로 공간을 실천하는 것(critical spatial practice)’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계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계 행위론(border praxeology)과 같은 이론적 접근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인공지능이나 생체 인식 기술, 강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조명하는 포스트휴머니즘 관점까지 다루고 있다(Connor, 2025).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기후 위기나 전염병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경계 현상에 대한 탐구로 확장될 수 있다.

요컨대 최근 경계 연구는 경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복합적으로 얽힌 다차원적 행위의 총합으로 파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계실천 관점은 물리적 장벽부터 기술적 통제, 상징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발현 방식을 해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 통찰을 제공한다. 나아가 경계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집단이 새로운 주체적 입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경계실천을 교육적 의제로 삼아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계를 매개로 글로벌 불평등이 작동하는 방식을 해체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선 중첩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한희경, 2013). 특히 학생들이 경계를 권력과 배제가 투영된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이다(원요한·임우진, 2021). 이러한 점에서 경계실천에 대한 탐구는 공간에 대한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행동 지향적 시민교육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다(Seidel and Budke, 2019).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습 모듈의 초안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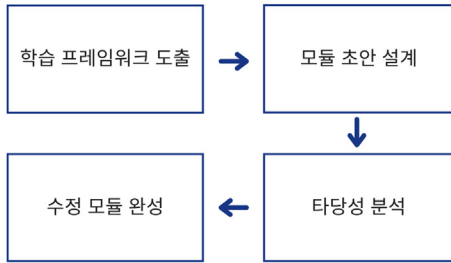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발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모듈의 교육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여 최종 모듈을 완성하였다. 주요 절차별 자세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도출

본 연구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계실천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발표된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 총 2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헌을 중심으로 경계실천 논의의 주된 축을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하위 역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계의 본질 규명에 관한 논의를 인지적 이해의 토대로, 윤리적 성찰을 다루는 논의를 정의적 태도의 영역으로, 그리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다루는 논의를 실천적 역량의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

기’, ‘세계시민적 경계’, 그리고 ‘경계작업’의 네 가지 개념이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예컨대, 학술적으로 경계의 사회적 구성을 의미하는 ‘경계짓기’ 개념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목표에 맞추어 ‘경계 이면의 권력 관계와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학습 전략’으로 교육적 목적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학습 모듈 개발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2. 경계실천 학습 모듈 설계

경계실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총 4개의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모듈별 학습목표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하위 역량과 연계하여 세분화한다. 각 모듈의 학습목표는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 실천적 역량의 세 영역으로 설정하여, 학습의 종합적인 효과를 도모하였다. 둘째, 2022 개정 지리과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모듈별로 관련 성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과목, 단원, 적용 학년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5E 학습모형에 기반하여 모듈을 구성한다(표 2). 이 모형은 학습자가 기존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주의적 탐구 절차를 제공한다. 특히 5E 모형의 체계적인 학습 단계는 학생들이 익숙한 경계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 개념화

표 2. 5E 학습모형의 단계별 주안점

단계	핵심 목표(Bybee et al., 2006)	경계실천 학습 모듈의 주안점
Engage (도입)	•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함.	• 경계에 대한 자신의 선지식이나 전통적 인식론을 되돌아보게 함.
Explore (탐색)	• 학생들이 직접 개념을 조사 및 탐구함.	• 경계 현상을 특정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함.
Explain (설명)	•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설명함. • 교사가 직접적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깊은 이해를 유도함.	• 새로운 경계 개념(관점)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유도함. • 기존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함.
Elaborate (확장)	•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함.	• 학습한 개념(관점)을 다른 지역 맥락에 적용 또는 실세계의 경계 이슈와 연결하게 함.
Evaluate (평가)	•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평가함. • 교사는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함.	• 학습 전후 인식 변화, 관점 확장에 대한 자기성찰을 유도함. • 다양성 및 차이 인식을 위한 동료 평가를 활용함. • 교사는 비판적 사고, 책임 의식, 대안 제시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Bybee et al.(2006)의 5E 학습모형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하고 실제 맥락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변혁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반이 된다. Bybee *et al.*(2006)이 제시한 5E 모형에 따라, 경계실천 학습 모듈에서 학생들은 먼저 경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는 도입 단계(Engage)를 거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역의 경계 사례를 탐색(Explore)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개념화(Explain)하면서 기존의 인식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후 학습 내용을 새로운 맥락이나 지역에 적용 및 확장(Elaborate)하고, 학습 전후로 자신의 변화를 성찰 및 평가(Evaluate)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 타당성 분석

수정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학습모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기법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달리, 첫 번째 델파이 조사에서 개방형 의견 수렴 단계를 생략하고, 문헌과 정책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를 따른다(Hsu and Sandford, 2007). 이

표 3. 델파이 패널 구성 현황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	3	30
	여	7	70
학교급	초등학교	1	10
	중학교	4	40
	고등학교	5	50
경력	1~5년	5	50
	6~10년	3	30
	11~15년	2	20
최종 학력	학사	1	10
	석사과정	7	70
	석사	1	10
	박사과정	1	10

에 따라 선행연구 문헌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도출한 학습 모듈의 초안을 전문가들이 1차 설문부터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현직 지리교육 전공 교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고루 선정하였다(표 3). 델파이 패널의 수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10명에서 15명이 적합하다고 밝힌 선행 연구(Dalkey, 1969; Delbecq, 1975)를 근거로 하였다.

설문 문항(표 4) 중 정량적 평가는 Abdelmohsen(2020)의 학습 모듈 평가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매우 적합(5점)부터 전혀 적합하지 않음(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모듈별로 6개의 평가영역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각 모듈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점,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장점과 한계 등을 주관식으로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정량적 결과 분석에서는 내용타당도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 안정적으로 합의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이하 IQR)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를 활용하였다(Hasson *et al.*, 2000; Shah and Kalaian, 2009).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패널 10명 기준으로 CVR이 0.62 이상, IQR 값이 1.0 이하, 변이계수(CV) 값이 0.50 이하일 때 내용타당성이 확보되고 높은 합의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경계실천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주요 학습 개념은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그리고 ‘경계작

표 4. 델파이 설문 문항

평가영역	평가문항
내용 연계성	학습개념과 주제가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목표 실현 가능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참여 의지를 촉진 가능한가?
교수학습 적절성	학습활동과 전략이 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학습자 수준 적합성	수업의 구성, 내용, 활동이 중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현장 적용성	모듈에서 제공되는 사례, 자료, 활동 안내 등이 충분하고 명확한가?
평가 계획의 적절성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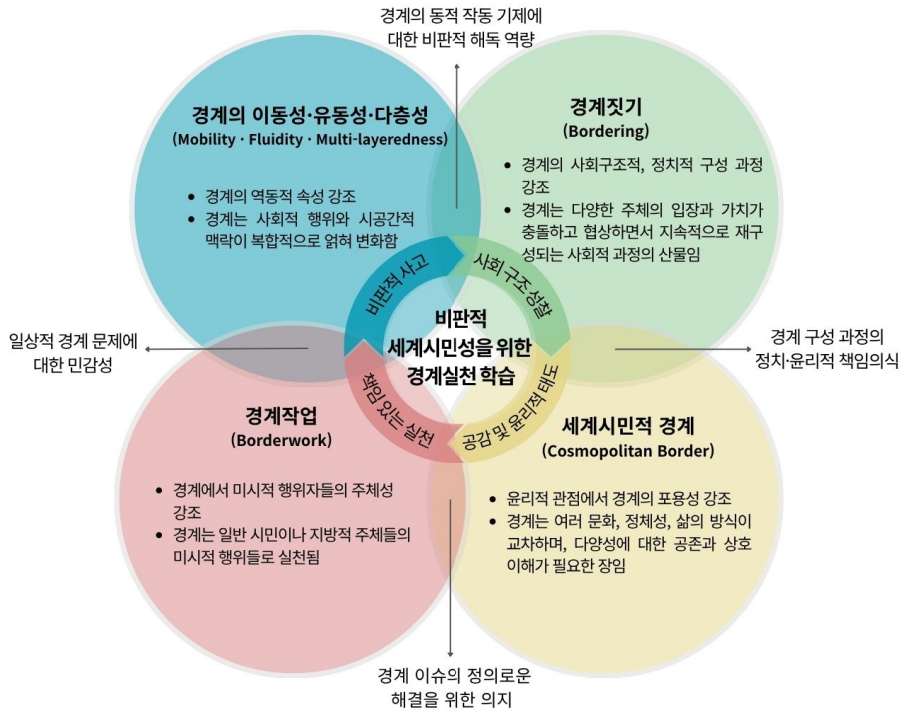


그림 2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업'이다. 이 개념들은 경계를 정태적인 구조가 아닌 실천적 관점에서 조망하지만, 각기 주목하는 초점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에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1) 경계의 이동성(Mobility)·유동성(Fluidity)·다층성(Multi-layeredness)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은 경계실천 관점에서 경계의 본질적인 속성을 규명한다. 전통적으로 경계가 고정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이 세 가지 속성은 경계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시공간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얽혀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Rumford, 2007). 먼저 이동성은 경계의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범위가 변화하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계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지정학적 힘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유동성은 경계의 통제 강도나 접근성과 같은 내부적 성질이 맥락에 따라 일시적 또는 상황적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특성을 말하며, 특정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른 국경 심사의 강화 또는 완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마치

막으로 다층성은 경계가 국가를 넘어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에 의해 복수적이고 다층적으로 실천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경계가 여러 겹의 층위(레이어)에서 존재하며 재구성됨을 시사한다.

이 세 개념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연하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재개념화하도록 유도하며, 세계화 시대의 복잡한 경계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했던 경계 현상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의 고정 또는 변화가 초래할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숙고하는 책임의식을 내면화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일상에서 경계 설정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2) 경계짓기(Bordering)

경계짓기는 경계를 정태적인 명사 'border'가 아닌 'bordering'이라는 동적인 행위이자 과정으로 파악한다 (Popescu, 2011). 즉 경계는 선형적으로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입장과 가치가 충돌하고 협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가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는 반드시 경계를 강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완화, 해체, 또는 새로운 형태로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경계짓기 학습은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성찰함으로써, 경계 이면의 불평등과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 설정 과정에서 소외 또는 배제된 존재들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불평등한 경계 구성 과정에 적절한 대안을 요구하고 관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3) 세계시민적 경계(Cosmopolitan Border)

세계시민적 경계는 윤리적 측면에서 경계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경계는 흔히 분리를 위한 닫힌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 정체성, 삶의 방식이 만나고 공존하는 접이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Rumford(2007; 2014)는 경계를 연결과 교차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시민적 경계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세계시민적 경계를 국경이 사라지거나 폐지된 상태가 아니라,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계라고 설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적 경계는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 등이 공존하며 상호 이해하는 포용적 경계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시민적 경계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경계에서 타자와 연대하는 가치를 중시하며, 윤리적 관점에서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는 포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를 배타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에서 배제되는 세계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나아가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경계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증진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4) 경계작업(Borderwork)

경계작업은 미시적인 행위자들의 일상화된 경계 구성 행위에 주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계에 대한 시선을 국가적 행위자보다는 접경지역 및 주변부 주민들의 일상

적 행동으로 전환한다. 미시적 경계 행위자들은 국가 중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 서사나 담론과 괴리된 경계 경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무기력함과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저항, 협상과 같은 주체적인 대응을 취한다(박배균 등, 2021). Rumford(2013)는 이와 같이 경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재해석하는 시민 주도의 사회적 경계 형성 활동을 경계작업으로 설명하였다. 즉 경계작업은 일반 시민이나 지방적 주체들이 일상에서 경계를 미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계작업을 학습하는 것은 경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경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민성을 강화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가 국가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 문제가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측면에서는 경계와 관련된 지역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편협한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2. 경계실천 학습 모듈

학습모듈은 앞서 제시된 학습 프레임워크와 주요 설계 원칙(학습목표 연계, 교육과정 연계, 5E 모형 기반)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최종 수정된 모듈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의 역동성과 지역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모듈 1(표 5)은 경계의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과 같은 역동적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변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유럽의 경계가 과거부터 이동하고, 쟁쟁한 협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기능하며, 국가 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층적으로 형성된 사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경계 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초래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검토하고, 경계 설정과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책임감 있는 결정의 필요성을 내면화한다.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경계 변화 사례와 그로 인한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모듈에 제시된 사례들은 유럽 경계의 역동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Rumford(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표 5. 유럽의 역동적 경계와 지역 변화 탐구하기(모듈 1)

질문	경계는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경계 변화는 지역과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 목표	인지	경계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이동하고, 다층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계의 역동성이 지역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의	경계 설정·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민감하게 인식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실천	세계 여러 지역의 경계 설정·변화 사례를 맥락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사(지리)03-03] 지역 간 역학관계에 따른 유럽의 통합과 분리의 움직임이 유럽연합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 [12세지01-02] 지역 통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변화의 역동성을 파악한다.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국경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다. - 예: 옆 동네와의 경계, 학교 안과 밖의 경계, 온/오프라인의 경계, 한국과 일본의 경계 등 	☞ 경계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경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유럽의 경계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공유한다. 	☞ 유럽의 경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랄산맥, 대서양,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같은 자연적 경계뿐일까요?
Explore - 탐색	<p>[경계의 '이동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동유럽의 서구화 과정이나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유럽의 경계가 이동한 이유와 결과를 탐색한다. ㉠ EU 경계 변화 및 확장을 지도화한 영상자료 ㉡ 영국 EU 탈퇴 관련 보도자료 	☞ 동유럽의 서구화 또는 브렉시트 사례에서 유럽 내부에 어떤 경제, 문화,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나요?
	<p>[경계의 '유동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권협정의 변동 사례를 통해, 유럽 내부 경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한 과정과 결과를 탐색한다. ㉢ 코로나19 생권협정 중단 및 재개 관련 보도자료 	☞ 생권협정의 중단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출퇴근, 무역, 가족 방문)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p>[경계의 '다층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외 다양한 주체(EU, 도시, 시민, 범죄조직 등)에 의해 경계가 다층적으로 설정되는 사례를 탐구한다. ㉣ EU 수준: EU 외부 국경을 관리하는 국경 관리기구 'Frontex' ㉤ 도시 수준: 런던 도심의 감시체계 '링 오브 스틸' ㉥ 시민단체 수준: 국경 통제·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 'No Borders 네트워크' ㉦ 비국가 행위자 수준: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몰도바 동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범죄조직이 실질적 국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각각 왜, 무엇을 위해 경계를 만들었나요? ☞ 이 사례들은 '경계는 국가가 만든다'는 기존 인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나요?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을 바탕으로, 경계와 지역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 경계 설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Elaborate - 확장	<p>[Re]porting Borders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 설정·변화로 인해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삶이 변화된 세계 지역의 사례를 조별로 조사한다. • 해당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사례의 어떤 점에서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이 나타나나요? ☞ 그로 인해 지역에서는 어떤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했나요?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누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세계의 경계 설정·변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찰한다. • 교사 평가: 핵심 학습 목표(경계의 역동성 이해, 지역 변화와의 관계 인식, 비판적 해석 능력)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진단하고 피드백한다. 	

* 모듈별 활용자료, 지도 시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은 [부록]에서 참고할 수 있음.

2) 지역 경계 설정의 정치성 성찰 및 공정한 논의

모듈 2(표 6)는 경계짓기의 관점에서 경계 이면에 잠재된 정치성을 성찰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중단 사례를 탐색한다. 이는 전염병 확산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비자 없이 통행 가능했던 제주의 특별 무사증 제도를 중단시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한 사례이다. 학생들은 출입국법과 통행 제도로 실천된 지역 경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권력 관계를 발견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국가·세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긴장 속에서 이

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함양한다. 이후 공청회 역할극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를 숙고하고 공정한 경계 결정을 위해 합의하는 활동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경계 논의 참여 의지를 증진한다.

3) 타자와 공감적 대화를 통한 포용적 경계 지향

모듈 3(표 7)은 세계시민적 경계의 관점에서 경계에서 배제된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태도와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경계에서 타자화되기 쉬운 전쟁난민, 기후난

표 6. 글로벌 이슈 속 공정한 지역 경계 논의하기(모듈 2)

질문	세계적 이슈 속에서 지역의 경계는 어떤 기준과 누구의 시선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학습 목표	인지	글로벌 이슈와 지역의 경계 간 상호 연계성 속에서 지역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지역·국가·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할 수 있다.
	정의	지역 경계 설정 논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와 입장의 차이를 공정하게 존중하고,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내면화할 수 있다.
	실천	공정한 경계 설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사(지리)01-02]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공간적 상호 작용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 [9사(지리)01-03]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 • [12세지01-01] 세계화의 의미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이해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 속에서 세계시민의 역할을 탐색한다.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제도 중단의 배경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제도의 중단과 제주 경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 지역의 경계가 강화된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중단으로 인해 강화된 제주 경계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지역 경계, 인구 유입 등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가 강화된 결과, 그로 인해 어떤 변화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제주 지역만 관련된 문제일까요?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안에 대한 제주도민, 중앙행정기관, 관광업 종사자, 외국인 관광객, 국제기구(WHO) 등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분석한다. • 이들 각자의 입장이 경계 설정 논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에 사는 관광업 종사자는 무엇을 위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계를 다시 완화해야 한다.) ☞ 무사증 제도의 중단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었고, 누구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사례를 통해 경계 설정 문제가 지역·국가·세계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 경계 이면의 갈등과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공정한 경계 결정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경계 설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국제기구, 해외이주민 등) ☞ 경계 설정에는 어떤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까요?(안전vs경계, 인도주의vs국익 등) ☞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입장, 사람을 고려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 설정’ 공청회 역할극] 학생들이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맡아,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 여부’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한다. -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서로 질의응답한다. - 의사결정집단은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나요? ☞ 최종 결정된 경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집단에게 사회는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할까요?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공정한 경계 논의와 설정을 위해 각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공유한다. • 교사평가: 공청회 참여 중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 토론 참여도, 공동체적 책임 의식, 문제 해결 능력을 진단하여 피드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개인/지자체/기업/정부/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만약 비슷한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공정한 경계 합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민, 이주노동자가 경계를 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차별, 불평등 등)을 이해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경계를 넘어야만 했던 사회구조적 배경을 인식하며 이들에게 공감하고 책임의식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각 인물의 페르소나를 설정한 챗봇과 대화 및 인터뷰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타자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공동체적 해결 의지를 고취한다.

표 7. 포용적 경계로 타자와의 공존 모색하기(모듈 3)

질문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학습 목표	인지	세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연대와 공존의 공간으로서 경계의 포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의	세계 타자들이 경계에서 겪는 어려움(차별, 불평등)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실천	세계 타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경계 이슈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 [12도탐03-03] 국제 이주에 따라 도시의 인구 구성과 공간 구조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과 세계타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에서 쉽게 차별받고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영상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 세계타자(㉠전쟁난민, ㉡기후난민,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 주목할 내용: 이주 경로(출신지역→정착지역), 이주 원인, 어려움·편견, 후속 대책의 시행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나요? ☞ 그럼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들 개인의 문제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타자 페르소나 챗봇과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챗봇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구상해본다. • 챗봇과 대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경계는 어떤 의미인지 탐색한다. • 페르소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난민': 시리아 내전으로 독일로 망명한 청소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 국경을 넘는 가족 ㉡ '기후난민':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을 떠난 투발루 주민, 가뭄과 식량난으로 수단을 떠난 청년 ㉢ '이주노동자': 카타르 건설 현장의 네팔 출신 노동자, 이탈리아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필리핀 출신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 전쟁을 피해 타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나요? ☞ ㉡ 기후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장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노동 현장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에서 타자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됨을 이해한다. • 이를 바탕으로 경계의 포용성이 필요한 이유를 정의와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는 왜 타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까요?(㉠정치적 불안정,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등 등) ☞ 보다 정의로운 경계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될까요?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소나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인터뷰 카드뉴스를 제작한다. - 포함 요소(예시): (1)인물 정보(유형, 출신 지역), (2)이주와 경계 경험(이주 경로·원인, 구체적인 어려움·감정), (3)구조적 원인 분석, (4)현재의 삶과 바람, (5)우리의 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들은 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지자체/기업/정부/국제사회] 등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성찰한다. • 동료평가: 결과물에 '포함 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 교사평가: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인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활동을 통해 타자들의 삶에 대한 나의 인식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경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표 8. 접경지역의 경계 서사 다시 쓰기(모듈 4)

질문	주민들은 어떻게 경계 문제를 받아들이고 저항하며, 접경지역을 재구성해왔는가?	
학습 목표	인지	접경지역을 다양한 의미와 삶이 담겨 있으며, 주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이고 일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의	경계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공감하고, 경계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실천	사회와 미디어 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협한 경계 서사를 다시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적 책임의식을 담아 새로운 서사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사(지리)11-02] 분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분리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비교한다. •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접경지역과 경계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공유한다. • 이미지 자료를 통해 접경지역이 군사, 평화, 생태, 개발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복합적 공간임을 인식한다. - 이미지 자료: 대북확성기, 평화테마노선, 생태코스, 경기북부개발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접경지역과 경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나요? ☞ 이미지 속 접경지역의 모습은 기존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자료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통해 경계가 이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 이들이 경계 이슈를 어떻게 수용, 저항, 협상, 또는 재구성해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찾는다. - 예) 대북 방송에 저항, 지뢰 제거를 위한 협상, 마을을 재생하려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속에서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고통스러운 일상 속 소음) ☞ 민통선 출입 통제는 파주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호 조치 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규제일까요? ☞ 이길리 주민들의 지뢰 제거 축구 운동은 DMZ의 평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떤 문제를 보여주나요? ☞ 대성동 주민들은 접경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나 군대와 어떻게 협상했을까요? ☞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접경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은 경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 접경지역을 ‘위험한 분단의 현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를 단순히 ‘국가가 정한 선’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고, 만들어나가는 일상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 우리 국토의 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의 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을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바라볼 때, 경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시민들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까요? ☞ 접경지역의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어떻게 공동체 차원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일보 재구성하기] 주민생활에 대한 고려나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기존 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기사의 내용을 다시 서술한다. 기사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 고려사항·포함요소(예시): (1)기존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 (2)주민들의 일상과 경계의 관계, (3)주민들의 인식 또는 바람, (4)주민들의 구체적 행동, (5)시민의 책임 및 행동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주민의 이야기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만약 내가 그 지역 주민 또는 기자라면, 기사에 제시된 상황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싶나요? - 예) “평화관광구역 개발 눈앞에” → “지뢰밭 위 농부의 사라진 일터”(수정)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접경지역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주의하는 의식을 키운다. • 동료평가: 결과물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 교사평가: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의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나요? ☞ 앞으로 접경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접경지역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주의하는 의식을 키운다. • 동료평가: 결과물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 교사평가: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의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나요? ☞ 앞으로 접경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 국가 중심 경계 담론에서 일상적 경계 서사로 재해석

모듈 4(표 8)에서는 경계작업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마주하는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구축한다. 학생들은 접경지역을 군사·안보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삶이 담겨 있는 공간이며,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공간임을 인식한다. 특히 경계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재서술함으로써 사회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편협한 경계 서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3. 학습 모듈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총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1차 조사 결과, 모듈 전체의 평균 평점은 4.6점이었고, CVR은 0.81로 기준치(0.62)를 상회하여 내용타당성이 높게 확보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합의도 지표인 IQR은 0.52, CV는 0.13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수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수준 적합성, 현장 적용성, 평가계획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은 판단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서술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9.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평가영역	평점 평균(M)		CVR		IQR		CV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모듈 1	내용 연계성	4.8	4.8	1	1	0	0	0.08	0.08
	목표 실현 가능성	4.4	4.4	1	1	1	1	0.11	0.11
	교수·학습 적절성	4.9	4.8	1	1	0	0	0.06	0.08
	학습자 수준 적합성	4.3	4.4	0.6	0.8	1	1	0.18	0.15
	현장 적용성	4.6	4.6	0.8	0.8	0.75	0.75	0.14	0.14
	평가 계획의 적절성	3.8	4.4	0.4	0.8	1.5	1	0.28	0.15
모듈 2	내용 연계성	5	5	1	1	0	0	0	0
	목표 실현 가능성	4.9	4.9	1	1	0	0	0.06	0.06
	교수·학습 적절성	5	5	1	1	0	0	0	0
	학습자 수준 적합성	4.6	4.9	0.8	1	0.75	0	0.14	0.06
	현장 적용성	4.9	5	1	1	0	0	0.06	0
	평가 계획의 적절성	4.7	5	0.8	1	0	0	0.19	0
모듈 3	내용 연계성	4.9	4.9	1	1	0	0	0.06	0.06
	목표 실현 가능성	4.9	5	1	1	0	0	0.06	0
	교수·학습 적절성	4.8	5	0.8	1	0	0	0.12	0
	학습자 수준 적합성	4.4	4.6	0.8	1	1	1	0.15	0.1
	현장 적용성	4	4.4	0.2	0.8	2	1	0.22	0.15
	평가 계획의 적절성	4.1	4.7	0.6	1	1	0.75	0.27	0.09
모듈 4	내용 연계성	4.7	4.9	0.8	1	0	0	0.13	0.06
	목표 실현 가능성	4.7	4.9	1	1	0.75	0	0.09	0.06
	교수·학습 적절성	4.7	4.9	0.8	1	0	0	0.13	0.06
	학습자 수준 적합성	4.3	4.6	0.6	1	1	1	0.18	0.1
	현장 적용성	4.6	4.9	0.8	1	0.75	0	0.14	0.06
	평가 계획의 적절성	4.3	4.8	0.6	1	1	0	0.23	0.08
전체 평균		4.6	4.78	0.81	0.97	0.52	0.31	0.13	0.07

* 음영 표시는 해당 항목이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평점 평균<4.00 또는 CVR<0.62 또는 IQR>1.00 또는 CV>0.50).

일부 용어(예: 타자화, 담론)의 학술적 난이도, 평가 계획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일부 탐구 활동의 난이도가 주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 용어를 학생 및 현장 교사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정제하고, 동료평가 및 교사평가 루브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 탐구 활동의 경우, 모듈 1의 '경계 다시 그리기' 활동을 '탐구 보고서 작성'으로 수정하고, 모듈 3의 '챗봇 설계'와 모듈 4의 '이주 관련 데이터 해석' 활동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학습 모듈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던 모든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며 전체 모듈의 타당성과 합의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었다. 전체 모듈의 평균 평점은 4.78점으로 1차 조사 대비 상승했으며, CVR은 0.97로 타당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합의도를 나타내는 IQR과 CV는 각각 0.31과 0.07로, 전문가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성적 평가에서도 모듈 전체에 대해 일관된 긍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모듈이 경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문제처럼 탐구하며 행동 의지를 함양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학생들의 고정된 가치관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부합하며, 난민, 이민자, 접경지역과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현장과의 연계성이 높다. 특히 평가 루브릭, 다양한 활용 자료, 지도 시 유의사항 등이 함께 제시된 점은 수업 적용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정량적 및 정성적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계 실천 학습 모듈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V. 논의

1.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역할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공간적 관점을 비판적 세계시민

교육의 이론적 담론에 통합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변혁적 실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념적 지향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Pashby and Costa, 2021). 이러한 이론-실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지리적 현상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이경환, 2018). 이에 따라 최근 학계는 공간을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경합하는 장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중적이고 경쟁적인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과 교수학습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는 지역의 혼성성(한희경, 2011) 및 지역 편견(김민성, 2013) 탐구, 나아가 이주(김갑철, 2017), 경계(원요한·임은진, 2021), 공간적 불균등(김예슬·최아수, 2025) 등 계통지리적 주제료까지 그 범위를 넓혀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논의를 뒷받침하여 지리교육이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실현을 위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교과는 학생들이 공간을 사회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를 재해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조철기, 2012). 이는 지리교과가 단순한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글로벌 정의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시민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범영우, 2025).

2.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적 구체화와 실천적 과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습자가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책임 및 실천 의지를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SOLIDAR Foundation, 2023). 이러한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적 접근은 단편적 사실 전달을 지양하고, 구조적 억압에 대한 민감성, 자기성찰을 통한 공동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위한 숙의 과정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왔다(Blackmore, 2016; 김갑철, 2019; de Vries,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 적용이 용이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듈은 경계 이면의 문제 분석, 공청회, 챗봇 인터뷰, 편향

기사 재서술 등 학생들이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해독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에 기반한 비판적 의식화(Conscientização) 개념을 교수 학습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적 실천을 구체화한다(Blackmore, 2016; de Vries, 2020). 특히 모듈에서 학생들은 행동에 앞서 충분한 대화, 공감, 정치적 논의를 경험하며 자신의 실천적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상상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교수학적 접근은 캠페인 참여처럼 미리 정해진 행동을 강요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Blackmore, 2016), 학습자가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de Vries, 2020).

한편 이와 같은 교수학습 전략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습 내용에 내재된 헤게모니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교육 실천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Pashby and Costa (2021)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성찰적 실천(reflexive praxis)이 중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교사 전문성을 개발하고 동료 교사 간 협력적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하기에,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을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 문화는 여전히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해방적 목표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and Yoo, 2022). 따라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거나 일상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경계 담론의 전환과 교육과정 연계에의 함의

본 연구는 확장된 경계 논의를 수용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제적으로 경계 개념은 위치(Where)의 문제에서 권력 역할(How)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의 교육과정은 경계를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가변적 구성, 정

치적 갈등,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하며(Seidel and Budke, 2019; Seidel et al., 2019), 국제 바칼로레아(IB)는 사이버 보안이나 초국경적 데이터 관리와 같은 현대 경계의 비물질적이고 네트워크화된 특성을 학습 내용에 반영한다(International Baccalaureate, 2019).

이러한 해외 교육과정 동향은 국내 교육과정에서도 경계 개념을 확장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지리교육은 오랫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으로 인해 제한된 경계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김기남, 2020; 범영우, 2025), 이제는 다양한 스케일과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경계를 탐구하고 학생들의 민감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박위준, 2023). 본 연구는 국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현상 이면의 보편적 사회 문제를 탐구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교육과정 설계 차원에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다중 스케일 접근과 관계적 사고 함양을 명시하고 있으며(김민성·이윤구, 2023), 경계의 사회적 구성성과 역동성을 성취기준에 반영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학계의 최신 경계 논의가 국내 교육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경계의 일상성 논의는 향후 공간적 시민성 함양의 측면에서 지리 교육과정에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학교나 동네에 내재된 경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재인식하게 하는 핵심 소재로 작용한다(김민성, 2017). 이러한 점에서 일상 공간에서 경계에 대한 민감성은 힘있는 시민 지식(powerful civic knowledge)을 형성하도록 도우며(de Vries, 2020),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책임 있는 공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eiss, 2020).

VI. 결론

본 연구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구체화를 목표로, 경계실천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정립하고 학습 모듈을 개발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듈은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5E 탐구 모형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각 모듈에서 학습자들은 경계 설정과 지역 변화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경

계를 공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속의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경계에 필요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시민 주체의 시선에서 일상화된 경계를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경계의 작동 기제를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부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일부 항목이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성적 응답을 바탕으로 모듈을 보완하였다. 수정된 모듈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내용 타당도와 전문가 합의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었으며, 정성적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술적 및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간정 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과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이 사회 변혁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습 모듈을 제시하여 기존 논의의 추상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현직 교사들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학교 지리 수업에서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는 향후 비판적 세계시민성 관련 수업 연구 및 교사 연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셋째, 확장된 경계 담론의 교육과정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모듈은 지리학계와 해외 지리교육에서 전환되는 경계 논의의 최신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 교육과정과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계실천 관점은 사회학, 정치학, 법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연계 지점이 풍부하여, 개발된 모듈이 통합사회와 같은 융합 교과목에서 개념적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잠재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의 학습자의 반응이나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듈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실천적 역량 측면에서 본 모듈은 학생들의 '행동의지'를 함양하는 것에 그쳤으나, 실천적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제 행동이나 사회 참여 경험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 주체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계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모듈을 구성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영토, 이주, 자원, 기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적 주제들을 활용하여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갑철, 2016, “정의의 향한 글로벌 시민성 담론과 학교 지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7-31.
- 김갑철, 2017, “세계지리 교과서의 이주 다시 읽기: 정의로운 글로벌 시민성을 향하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3), 123-138.
- 김갑철, 2022, “학교 지리교실에서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해체적 페다고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118-132.
- 김기남, 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지리 교육과정 구상-영토와 경계의 관계론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73-87.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민성, 2017,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와 적용: 장애인 시각에서 대구 근대화 골목 바라보기,” 한국지리학회지, 6(3), 339-354.
- 김민성·이윤구, 2023,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1-14.
- 김예슬·최아수, 2025,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비판적 세계시민성 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3(1), 35-53.
- 박배균·쉬진위·신진숙, 2021,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77, 163-197.
- 박위준, 2023, “국경 너머의 보더: 오늘날 보더는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대한지리학회지, 58(6), 563-584.
- 범영우, 2025, “비판지정학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전환적 탐색: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4(3), 281-297.
- 원요한·임은진, 2021, ““비판적 경계 읽기”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1), 51-65.

- 윤노아, 2022, “사회과 수업에 나타난 세계시민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과교육*, 61(1), 47-65.
- 윤성혜·강명희, 2017, “텔파이 기법을 통한 대학생용 세계 시민성 (Global Citizenship) 측정도구 개발,” *시민교육연구*, 49(4), 63-87.
- 이경한, 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39-75.
- 조철기, 2012, “비판교육학의 공간적 관심과 지리교육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47(5), 775-790.
- 한희경, 201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사고의 매개로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23-141.
- Abdelmohsen, M. M., 202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dule on enhanc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writing skills, *SAR Journal-Science and Research*, 3(4), 166-177.
- Andersen, D. J., Klatt, M., and Sandberg, M., 2016, *The Border Multiple: The Practicing of Borders between Public Policy and Everyday Life in a Re-scaling Europe*, New York: Routledge.
- Andreotti, V., 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 40-51.
- Blackmore, C., 2016, Towards a pedagogical framewor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8(1).
- Bybee, R. W., Taylor, J. A., Gardner, A., Van Scotter, P., Powell, J. C., Westbrook, A., and Landes, N., 2006, *The BSCS 5E Instructional Model: Origins and Effectiveness*, Colorado Springs, CO: BSCS.
- Connor, U., 2025, Border praxeology: Linking border studies to practice theories,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1-20.
- Dalkey, N. C., 1969,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Futures*, 1(5), 408-426.
- de Vries, M., 2020, Enacting critical citizenship: An inter-sectional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ocieties*, 10(4), 91.
- Delbecq, A. L., Vande Ven, A. H., and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Dispa, J., Vloeberghs, W., and Skenderija, K., 2025, Getting critical about critical world citizenship: Bottom-up skills development and in-classroom operationalization within a dutch liberal arts colleg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21.
- González-Valencia, G., Massip Sabater, M., and Santisteban Fernández, A., 2022,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study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ntiers in Education*, 7, 867113.
- Hafeda, M., 2016, Bordering practices: Negotiating theory and practice, *Architecture and Culture*, 4(3), 397-409.
- Hasson, F., Keeney, S., and McKenna, H., 2000, Research guidelines for the Delphi survey techniqu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4), 1008-1015.
- Hsu, C.-C. and Sandford, B. A., 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2(1), Article 10.
- Kim, H. and Yoo, S. S., 202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Emancipatory potentials and entrenched realities in South Korea, *The Palgrave Handbook on Critical Theories of Education*, 147-161.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 Mansouri, F., Johns, A., and Marotta, V., 2017, Critical global citizenship: Contextualising citizenship and globalisation, *Citizenship and Globalisation Research Papers*, 1(1), 1-9.
-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186-207.
- Oxley, L. and Morris, P., 2013, Global citizenship: A typology for distinguishing its multiple concep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61(3), 301-325.
- Pashby, K., 2015, Conflations, possibilities, and foreclosur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context, *Curriculum Inquiry*, 45(4), 345-366.
- Pashby, K. and Costa, M. da, 2021, Interfaces of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research about secondary schools in 'global north' contexts, *Globalisation, Societies*

- and Education*, 19(4), 379-392.
- Pashby, K., Da Costa, M., Stein, S., and Andreotti, V., 2020, A meta-review of typolog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56(2), 144-164.
- Popescu, G., 2011, *Bordering and Ordering the Twenty-first Century: Understanding Border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이용균·이현옥·이영민 역, 2018, 「국가·경계·질서: 21세기 경계의 비판적 이해」, 서울: 푸른길).
- Rumford, C., 2007, Does europe have cosmopolitan borders?, *Globalizations*, 4(3), 327-339.
- Rumford, C., 2013, Towards a vernacularized border studies: The case of citizen borderwork,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28(2), 169-180.
- Seidel, S. and Budke, A., 2019, "A border is a ban"-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europe's borders and boundaries,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Online (RIGEO)*, 9(1), 82-101.
- Seidel, S., Bettinger, P., and Budke, A., 2019, Representations and concepts of borders in digital strategy games and their potential for political education in geography teaching, *Education Sciences*, 10(1), 10.
- Shah, H. A. and Kalaian, S. A., 2009, Which is the best parametric statistical method for analyzing Delphi data?,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8(1), 20.
- SOLIDAR Foundation, 2023, *We All Belong: The Role of GCE in Supporting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Addressing Current Global Challenges (Policy Paper)*.
- Stein, S., 2015, Mapping global citizenship, *Journal of College and Character*, 16(4), 242-252.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OECD.
- van Houtum, H., 2005, The geopolitics of borders and boundaries, *Geopolitics*, 10(4), 672-679.
- Weiss, G., 2020, The social-constructivist concept of space in a german geography education context: Status-quo and potential,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Online*, 10(4), 684-705.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2019,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Geography guide*, <https://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curriculum/individuals-and-societies/geography/>.
- Oxfam,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https://www.oxfam.org.uk/education/who-we-are/global-citizenship-guides/>.
- 교신 : 정다운,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jde1211@snu.ac.kr)
- Correspondence: Daeun Je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jde1211@s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11월 16일

부 록

1) 모듈 1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xplore(탐색) 단계 중 미디어 자료] ㉠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1952-2022)”(Youtube, 2023.03.12.) ㉡ “유럽의회 터키와 EU 가입협상 중단해야” (YTN, 2017.07.07.) ㉢ “코로나19로 퇴색한 쟁쟁협정 복원되나...유럽 국경통제 일단 완화”(SBS 뉴스, 2020.05.14.) ㉣ “Frontex,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Youtube, 2017.06.01.) ㉤ “To Fight Terror, New York Tries London's 'Ring of Steel'”(New York Times, 2005.07.24.) ㉥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세계여행#51”(Youtube, 2023.12.18.)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경계 결정 사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토론을 독려한다. 예) 코로나 당시 쟁쟁협정 중단이 정당한지?, 유럽 외부(Frontex)와 런던 도심(링 오브 스틸)의 지나친 경계 강화는 어떤 차별을 낳을지? • Elaborate(확장) 단계에서는 다음의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시-군위군 통합(이동성), 영토전쟁의 국제화(다층성), 미국-멕시코 이민정책 변화(유동성) 등. 또한 학생의 희망진로나 관심분야와 연계하여 실천방안을 계획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 영역	평가 기준
개념 이해 및 적용	개념(경계의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사한 사례에 매우 적절하게 적용하여 설명한다.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경계 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안 제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보고서 및 발표의 논리성	보고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발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2) 모듈 2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xplore(탐색) 단계 중 참고 자료] - “제주 무사증 입국중단 한달...중국인 입도 94% 감소”(연합뉴스, 2020.03.03.) - “정세균 국무총리 ‘제주도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제주의 소리, 2020.02.02.) - “18년 만에 중단된 제주 무사증...“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KBS 뉴스, 2020.02.02)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논의 과정에서 감염병 피해에 대한 불안과 낙인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근거에 기반하여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 공정한 토론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입장 소개, 절차 안내, 시간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청회에서 경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함께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 영역	평가 기준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	같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토론 참여도	공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작용한다.
공동체 책임의식	경계 설정의 이면을 성찰하고,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한다.
대안 제시 능력	경계 설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3) 모듈 3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ngage(도입) 단계 중 뉴스영상 자료] ㉠전쟁난민: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다"...난민 비극 계속된 2021년(YTN 뉴스, 2021.12.18.) ㉡기후난민: "'집단 이주' 날벼락...10억 기후 난민이 온다"(KBS 뉴스, 2024.06.19.) ㉢이주노동자: "일하고 싶어요"...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위기(YTN 뉴스, 2025.07.25.)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편견 없이 타자의 입장에 접근하도록 개입한다. • 세계 타자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되, 개인적 서사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교사는 튜튼의 크랙(https://crack.wrtn.ai/)과 같이,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없이도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 챗봇 활동 이전에, 학생들에게 챗봇과 질의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 인터뷰 카드뉴스 제작: Canva와 같은 플랫폼의 인터뷰 템플릿(https://www.canva.com/templates/)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학생 동료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요소	평가내용
(1)인물정보	챗봇 페르소나의 유형(예: 전쟁난민, 기후난민)과 출신지역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2)이주와 경계경험	챗봇 인터뷰를 통해 이주경로와 원인, 경계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감정이 잘 드러났는가?
(3)구조적 문제 분석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않고, 그 이면에 있는 제도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는가?
(4)현재의 삶과 바람	챗봇 페르소나의 현재 삶의 모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5)우리의 실천 방안	챗봇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는가?
• 동료의 카드뉴스를 읽고 세계타자들이 겪는 문제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내용의 충실성	'포함 요소'(인물 정보, 이주 경험, 구조적 문제, 실천 방안 등)를 모두 구체적으로 담고,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비판적 문제 인식	타자가 겪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세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 지어 깊이 있게 분석한다.
공감과 책임 의식	타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표현한다.
전달력	카드뉴스의 구성이 명확하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타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낸다.

4) 모듈 4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ngage(도입) 단계 중 이미지 자료] - 군사(대북확성기): "北 향해 BTS 봄날 틀었다"... 6년 만에 다시 켜 대북확성기(국민일보, 2024.06.09.) - 평화(평화테마노선):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3.28.) - 생태(생태관광): 고양시 DMZ 평화의 길, '장항습지 생태코스' 전면 개방(메트로신문, 2024.05.17.) - 개발(경제개발사업):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산업종합저널, 2025.03.06.) [Explore(탐색) 단계 중 탐구 자료] - 국가안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저항: "귀곡성 올리는 대성동..여긴 생지옥", 주민들 "나라가 우릴 버렸다"(파이낸셜뉴스, 2024.11.01.) - 국가안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저항과 협상: "육군 1사단, 파주 민통선 영농인 출입통제 완화"(한겨레, 2021.10.15.) - 일상적 평화를 위한 저항: "내 돈으로 지뢰 제거했더니 불법이랍니다" (오마이뉴스, 2015.07.05) - 일상적 평화를 위한 저항: 군사긴장 속 '쌀보내기' 강행...인천 석모도 주민 불안 고조 (인천투데이, 2020.06.1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지역의 개발위기에 대한 저항과 협상: “청정철원에 축사 허가 남발 웹 말이나”(한국농정, 2018.05.04.) - 생태보존을 위한 협상과 재서술: 실향민 3세대의 파주 민통선 내 DMZ 숲 조성(동일부 영상, 세계일보, 2025.02.24.) - 주민들의 마을 개발 속 협상과 재서술: 대성동의 주민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마을이장의 경계 관리(<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 소개글) - 개발제한구역의 인구소멸위기 속 협상과 재서술: “이웃은 계속 줄어들지만... 그래도 살길은 있더라”(경기일보, 2023.05.27.)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접경지역의 특정 이미지에 매몰되지 않고, 다중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행동을 단순히 민원이나 불만보다는, 주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접경일보 재구성하기’에서 분석할 기존 기사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이때 [Explore-탐색 단계]에서 제시한 사례들의 관련 기사를 찾게 하거나, 아예 새로운 사례를 직접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
학생 동료 평가용 루브릭	
평가요소	평가내용
(1)기존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	기존 기사가 접경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는가?
(2)주민의 일상과 경계의 관계	재구성된 기사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는가?
(3)주민들의 인식과 바람	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담아냈는가?
(4)주민들의 구체적 행동	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했던 저항, 협상 등 구체적인 행동을 잘 묘사했는가?
(5)대안 제시 또는 책임의식	기사 재구성 내용에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강조했는가?
• 동료의 기사를 읽고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사 평가용 루브릭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내용의 충실성	재구성 기사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지)를 모두 깊이 있게 반영했다.
비판적 문제의식	기존 기사의 편협한 시각을 파악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적절히 재서술하였다.
책임 의식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나타난다.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독자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